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최윤채

파견기간: 2025.10 ~ 2026.03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TUM, 뮌헨 공과대학교)

1. 교환 파견 동기

대학생활 동안 꼭 이루고 싶었던 목표 중 하나가 교환학생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은 국가 간 이동이 편리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좋고, 독일은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중에서도 TUM은 독일을 대표하는 공과대학이자 세계적으로도 연구력과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대학으로, 역사와 전통을 갖춘 학교라는 점에서 1지망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뮌헨은 독일 내에서도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으며 여행 접근성이 좋아 교환학생 생활을 보내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출국 전 준비 사항

2.1 비자 발급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였습니다. 비자 발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6월 중순에 신청한 비자가 출국 1주 전인 9월 초에야 발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합격 통보 및 acceptance letter를 받는 즉시 비자 신청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독일 현지에서도 비자 발급은 가능하지만 처리 기간이 매우 길고, 입국 후 90일이 지나면 유럽 내 여행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한국에서 미리 발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2 TUM application

OIA에서 합격 메일을 받은 후 TUM 측에서 nomination이 이루어지며, 이후 교환교에 직접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안내 메일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슈페어konto 및 공보험 가입

비자 발급을 위해 경제 능력 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슈페어콘토(Block Account) 개설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Expatrio 플랫폼을 이용해 슈페어콘토 개설과 TK 공보험 가입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독일 공보험은 교환학생에게 의무 가입 사항이며, 매달 약 130 유로가 납부됩니다. 보험 혜택이 넓기 때문에 예방접종(예: 가다실)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4 기숙사 배정

기숙사의 경우 TUM 자체 기숙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뮌헨 지역 학생 기숙사 관리 기관에서 전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환교로 파견되더라도 서로 다른 기숙사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Olydorf 기숙사에 배정되었으며, U-Bahn 역과 가까운 위치, Olympiapark 인접, 개인 화장실 및 개인 부엌 보유 등의 장점이 있어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2.5 독일어 준비

출국 전 초급독일어1을 수강하였습니다. 독일은 영어 사용률이 매우 높아 일상생활에서 독일어를 거의 하지 못해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독일어를 더 배우고 싶다면 교환교에서 독일어 수업을 수강하거나 ESN에서 운영하는 Language Café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3. 학내 생활

3.1 수업 및 평가 방식

TUM은 출석 체크를 거의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과목이 학기말 기말고사 1회로 성적이 결정됩니다. 과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필수 제출은 아니며, 일정 개수 이상 제출 시 학점이 소폭(약 0.3점) 상승하는 방식입니다.

3.2 수강신청과 시험신청

뮌헨 공대는 한국과 달리 수강 과목 변경이 학기 내내 가능하며, 시간표가 겹치는 과목도 자유롭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과목을 여러 개 들어보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 응시는 별도의 시험 신청 절차를 통해 신청한 과목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3.3 수강과목

학사 과정 대부분이 독일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로 제공되는 석사 과목을 주로 수강하였습니다. 수강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troduction to Deep Learning (약 1400명이 수강하는 인기 강의)
- Data Networking (기말고사와 별도로 중간고사 5회 진행, 필수 아님)
- HW/SW Codesign
- Software Engineering Lab (학사 과정이지만 영어로 진행)
- German as a Foreign Language A1.1 (독일어 수업으로 초급독일어1과 비슷한 수준)

4. 학외 생활

ESN(Erasmus Student Network)에서 다양한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숙사에서 Servicepaket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SN 웹사이트에 새로운 이벤트가 자주 업데이트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매주 Language Café의 Korean Table에 참여하여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기 시작 전 약 2주 동안 Chimsee, Deutsches Museum, Eibsee 등 뮌헨 근교를 여행하며 독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Culture Creatures'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베를린 Spreebreak 행사(3박 4일), 뉘른베르크 당일치기, 할로윈 호박 깎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뮌헨은 유럽 여행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뮌헨 공항은 저가항공이 적지만 뉘른베르크, 뮌헨 공항을 이용하면 저가항공 이용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기차 및 flixbus 노선이 매우 잘 되어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기차나 버스로 충분히 이동 가능해 여행하기 최적의 지역였습니다. 또한, Deutschland-ticket을 이용하면 독일 전역의 지역 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뉘른베르크, 밤베르크 등 뮌헨 근교와 오스트리아의 Salzburg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한 학기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값진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여러 도시를 여행한 경험은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파견에 도움을 주신 국제협력본부와 공과대학 국제 협력실에 감사드립니다.